

전통 도시주택 마치야

에도 시대(1603-1867)부터 상인과 장인들이 거주하고 일했던 무라카미 중심가의 거리 곳곳에서 전통 도시주택인 마치야 가옥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옥이 상점이나 개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일 년 내내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긴 형태의 건물

전형적인 마치야는 길에 인접해 있고, 전면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2층 건물입니다. 에도 시대의 재산세는 도로 전면의 폭에 따라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 생겨났습니다. 정문 바로 너머에는 흠바닥으로 된 입구와 상점 주인이 앉을 수 있게 높은 마루 공간으로 나뉜 상점 공간이 있습니다. 좁은 흠바닥 통로는 상점에서 집과 거실을 지나서 뒷마당으로 이어집니다.

무라카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치야 스타일로 상점 너머에 있는 첫 번째 방은 거실로, 가족들이 이로리 난로 주위에 모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 방에는 신위를 모신 감실 및 불단이 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침실, 욕실, 창고가 있습니다.

마치야는 보통 바로 옆에 나란히 지어지기 때문에 측면에 창문이 없습니다. 대신 천장이 높고 채광창이 있어 자연광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화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조명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치야 방문하기

무라카미의 마치야 대부분은 중앙의 마치야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으며, 지역 상점주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협회가 2004년부터 전통 가옥을 보존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히나마쓰리(인형 축제)와 관련된 인형이 전시되는 봄과, 장식용 병풍 을 볼 수 있는 가을에는 50 채 이상의 건물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연어 상점, 과자 상점, 주류 상점 등은 일년 내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는 여러 사찰을 지나 전통 스타일의 검은 담장이 줄지어 있는 구로베이 거리도 있습니다.